

## 帖裏에 관한 再考論

이 순 자

동신대학교 의류학과

### The Theory of Review on Chulik

Soon-Ja Lee

Dept. of Clothing & Textile, Dongshin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ulik of Soo Buen's, Heymjo Kim's, Sooncheon Kim's grave in early Chosun Dynas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se concretely the relation to Mongolian Costume, Zilsun and Chulik, or the distinction of sex to wearer. This paper reviews the general construction form the excavated graves of them. This paper finds that there exist different Chulik forms according to the ratios between upper portion and lower portion in Chulik. And so there exist Chulik formed at the rate of long upper portion and short lower portion in Early Chosun Dynasty. Eventhough they were a kind of Mongolian costume, in relation to Zilsun(質孫) and Chulik(帖裏) they are different form each other. They have a lot of pleats coat(襞積袍), but they are different clothes. and also, even if Chulik were excavated in women's grave, because their husbands presented them to their wives, Chuliks were not women's, and they were used for men.

Key words : Chulik(帖裏), Yaesal(曳撒), Zilsun(質孫), Biebok(飛魚服), Buekjukpo(襞積袍).

益, 千翼, 綴翼 등으로表記되고 있으며, 한글표기는 털릭, 턴릭, 철릭, 천닉 등으로 불려지고 있다<sup>1)</sup>.

高麗歌詞(鄭石歌)에, 「三才圖會」<sup>2)</sup>에 철릭의 기록이 있어 우리 나라에서는 高麗後期에 需用되어 朝鮮末까지 사용되어온 것이다. 이러한 철릭의 문묘 출토복식이 최근 많이 보고되면서 이에 관한 연구가 다방면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研究者에 따라 같은 형태의 복식에 衣名을 달리하거나 墓主의 人的事項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의 年代推定이 일정하지 않거나 壽衣

### 1. 序 論

철릭(帖裏)은 우리나라의 傳統的인 袍와는 달리 衣와 裳을 각각 따로 만들어서 허리에 잔 주름을 잡아 縫合한 특이한 構成으로, 양쪽 소매나 왼쪽 혹은 오른쪽 소매에 매듭단추를 달아 소매를 메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 한 것도 있다.

基本形制에는 차이가 없이 다양한 명칭이 있으며 우리나라 文獻에서 그 명칭은 帖裏, 貼裏, 天翼, 天

1) 李恩珠, '철릭의 명칭에 관한 연구', 한국 의류학회지, 제12권 3호, 1988, p.364.  
金贊珠, '철릭에 關한 服飾史의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p.5.  
文明姬, '帖裏에 關한 研究',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980, pp.5~6.  
金正子, '帖裏考', 服飾, 韓國服飾學會, 1984, p.57.

2) 「三才圖會」, 衣服 二卷 三十九.

와 平常服의 구분, 男女服의 구분이 서로 달라 實物史料 이용에 혼돈을 가져오고 있다<sup>3)</sup>.

그러므로 본 연구는 조선초기의 분묘에서 출토된 遺衣로서 철릭 중에 朝鮮時代 初期의 유사한 생몰년대(生沒年代) 시기 것으로, 遼脩(1447~1524), 金欽祖(1461~1528), 順天金氏(?~1530), 高雲(1479~1530) 등의 출토품 철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출토품 보고서가 이미 발표되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概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出土服飾은 墳墓移葬時 棺內에서 屍身과 함께 發見되는 服飾類를 의미한다. 出土服飾은 死者에게 입하기 위해 새로 만드는 新衣와 闊大한 棺內部를 채우기 위하여 補空品으로 넣어준 散衣로 大別된다. 出土服飾은 총칭 壽衣라고 지칭되고 있으나 壽衣는 곧 新衣로 葬禮의 斂襲 과정중 襲時에 소용되는 襲衣이며 散衣는 死者의 生存時 着用되었던 平常服으로 有官者의 경우 團領 등의 冠服이 포함되며 配位의 服飾에도 金線緞 有紋緞 등의 화려한 고급 비단류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들은 小斂 大斂時 斂衣로 사용되므로 出土服飾의 대부분은 斂衣類이다. 때문에 出土服飾들은 당시의 服飾制度를 규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sup>4)</sup>.

이로써 특히 墳墓出土 遺物인 順天金氏 철릭으로 인한 女性 철릭 着用說에 대한 理論을 규명하기 위한 직접적인 자료로서 중요한 것이다.

先行研究는 '철릭이 高麗時代 蒙古服飾 質孫의 遺形이다<sup>5)</sup>'라고 하고 있다.

본 연구는 元의 質孫과 철릭과의 관계를 재정리하여 철릭이 高麗時代 元의 服飾인 質孫과는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규명하여 재정립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忠北 淸原郡 北一面 外南里에서 出土한 順天金氏(?~1530년)의 흰 모시 철릭과 갈색 겹 누비 帖裏로 女人도 帖裏를 입은 사실을 알 수 있다<sup>6)</sup> 라고 하는 先行研究가 있다.

이로 인해 順天金氏(?~1530)와 長興任氏(1590년 대)의 유의로서, 피장자가 女性인 까닭에 女性의 帖裏着用說이 1978년에 順天金氏 墳墓出土 報告書에 발표되었으며 그 이후 이 견해가 정설이 되었다.

그러나 이미 최근의 先行研究에서 밝혀진 바 있으나 아직도 분묘 출토 유물 중에 피장자와 性이 다른 복식이 출토된 경우 이를 피장자의 服飾이라고 추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바로 잡아 시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철릭이 高麗時代 蒙古服飾의 質孫과의 관계 및 그것의 착용자의 性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규명함으로써 철릭의 概念을 再考하여 여러 가지 異論을 재정립시키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관련 문헌자료와 본문에 제시한 조선초기의 4인 피장자의 분묘출토 발굴 조사 연구 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 철릭(帖裏)의 由來와 變遷 및 用途

철릭이라는 용어가 쓰여진 최고(最古)의 자료는 15C말의 高麗歌詞 「악장가사(樂章歌詞)」중 「정석가(鄭石歌)」는 傳 忠烈王代<sup>7)</sup>인 作者未詳의 時調이다. 그 內容가운데 '모쇠도 털릭을 몰아나는 鐵絲로 주름바고이다<sup>8)</sup>'란 대목에서 털릭이 나타난다.

털릭은 16~17世紀頃 國語에서 일어난 音韻變化인 口蓋音化(Palatalization)<sup>9)</sup> 現象에 의해 철릭으로 음역(音譯)했다. 즉 털릭은 바로 철릭인 것이다.

이 時期에 이미 철릭이 存在했고, 그 形態가 「주름바고이다」란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주름이 잡혀있는 옷이었다는 점은 짐작할 수 있다.

高麗歌詞(鄭石歌)에 철릭의 기록이 있고 「三才圖會」에도 帖裏를 입은 高麗人의 모습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高麗後期부터 입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sup>10)</sup>.

3) 朴聖實, '朝鮮前期 出土 服飾研究', 世宗人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2, p.2.

4) 朴聖實, 前掲書, p.2.

5) 金東旭, 高福男, '出土 朝鮮時代 遺衣의 服飾史의 研究', 服飾學會誌 二號, 1978, p.19.

6) 金東旭, 高福男, 前掲書, p.19.

7) 梁柱東, 麗謠受註, 乙酉文化社, 1955, p.27.

8) 梁柱東, 前掲書, p.333.

9) 劉昌淳, 李朝國語史研究, 宣明文化史, 1973, pp.94-96.

우리나라의 直垂型인 傳統 袍와는 달리 衣와 裳을 各各 따로 만들어서 허리에 잔주름을 잡아 縫合한 특이한 構成이다.

또한 高麗後期에 需用되어 朝鮮朝末까지 사용되는 동안 帖裏는 名稱과 形態上에 變遷을 보인다. 먼저 帖裏의 文獻上 表記는 形態나 取音, 用途에서 비롯한 몇 가지 用例가 있다. 이를 時代別로 보면 宣祖代까지는 帖裏, 貼裏로 그 表記가 局限되고 있으며 中期以後는 戎服으로 通稱되거나 帖裏, 天益, 天翼, 綴翼 등으로 表記되고 있다. 이들 중에서 用途나 時代에 무관하게 사용되었던 名稱은 帖裏인데 裏衣에는 반드시 帖裏 貼裏가, 表衣로 쓰일 때는 天益과 天翼이 사용되고 있고, 그 중에도 天益은 宮中에서, 天翼은 武官服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보면 中後期부터는 帖裏의 用語에도 어느 정도 分化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10)</sup>.

중종대에 이르기까지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철릭에는 단, 겹, 유 유형이 있으며 유청면주와 초록면주, 백면포 철릭이 많았고 그 외에 남단자나 남비단, 주황단자, 도홍저사, 필단, 有色면주, 정주, 주, 홍주, 압두루주, 흑마포, 백저포 등의 것도 있었다<sup>12)</sup>.

「尙方定例」, 「國婚定例」, 「歷代嘉禮」, 「都監儀軌」에는 單, 袂, 襦 등 세 종류의 帖裏가 고루 보이며 색깔도 草綠, 大紅, 紫의, 靑鶯, 白 등으로 다양하고 內拱은 紅色으로 일정하다. 遺衣 帖裏에도 袂, 襦 帖裏가 있기는 하나 單帖裏가 대부분이며 色은 靑, 靑, 紅이 主調를 이룬다<sup>13)</sup>.

앞에서의 철릭의 기록은 중종때까지 다양한 색상과 다양한 적물로 된 單·袂·襦 등의 철릭이 이 시기에 실재했음을 알 수 있고 이 시기의 철릭이 다음 시기에 변화하였음을 「續大典」, 「增補文獻備考」에서 찾아볼 수 있다.

「續大典」에 의하면 堂上官은 藍色, 堂下官은 靑玄色 帖裏이며 郊外 動輒時는 紅色이라 하였는데 純祖末에는 홍침리가 다시 靑色으로 바뀌어(增補文獻備考 卷79. 禮考 26 章服-) 말엽까지 사용되었다. 그

러나 侍衛, 使令, 羅將 등 下級職 官隸들은 백색, 천담색, 홍색, 청색을, 기타 樂工이나 巫堂은 주로 홍색을 착용하였으며 別監도 通常禮服으로는 조선末까지 紅色을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 初期 帖裏의 形狀은 (樂學軌範) 冠服圖說에서 확인되며 出土遺衣 및 遺物은 1500년대 初期의 것에서부터 창덕궁에 소장된 조선 末期의 帖裏에 이르기까지 다수 전하고 있어 완만한 변화이기는 하나 뚜렷하게 형태의 변화를 계통지을 수 있다. 즉 初期의 形態는 진동선에서 袖口를 向하여 소매통이 좁혀진 窄袖이며 衣와 裳의 比率이 1:1이고 여밈의 위치가 오른쪽 겨드랑이에 이르며 裳에 잔주름이 잡힌 直領交衽式 上下連綴衣이다. 이러한 모습은 「明 宣宗 行樂圖」에서 보이는 宣宗의 馬上衣와 일치한다. 그러나 점차 소매형태, 깃 모양, 여밈의 위치와 방법, 衣와 裳의 比 등이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1620年代에 이르면 변화의 경향이 뚜렷해진다. 대체로 이때를 國俗化의 時期로 볼 수 있을 것이다.

各 部位의 變化를 보면, 먼저 소매의 부리 쪽 배래가 넓어지면서 곡선이 나타나는데 1620年代에는 진동과 소매통의 比가 1:1.6에 이르는 두리소매로 변화한다. 이 즈음부터 소매통은 옷의 길이보다 넓어지기 시작하여 朝鮮末에는 진동과 소매통의 比는 1:2, 衣의 길이와 소매통의 比는 1:1.8에 이르게 된다. 또한 한쪽 소매를 매듭단추로 연결시켜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있는데 이는 아마도 戎服으로서의 機能性을 고려한 것인 듯하며 단철릭일 경우는 대부분 결대와 등바대를 대어 만들었다. 또 말엽의 巫服用 帖裏에는 汗衫을 단 것도 있다.

깃 나비는 평균 12cm 내외로 말엽까지 별 변화가 없으나 깃머리는 날카로운 칼 깃에서 현재의 두루마기 깃처럼 완만한 모습으로 변화였다. 결선은 초기부터 표현되나 안선은 1620년대 이전에는 간혹, 그 이후에는 항상 나타난다. 또한 여밈의 위치가 오른쪽 겨드랑이에서 점차 중앙으로 옮겨지고 여밈 방법도 상하 2쌍의 좁고 짧은 끈형식의 것에서 좌우 한

10) 柳喜卿의, '斂襲衣' 1989, p.181, (溫陽民俗博物館編, 「安東金氏 墳墓發掘 調查報告書」)

11) 柳喜卿의, 前掲書, 1989, p.181.

12) 李恩珠, '金欽祖(1461~1528) 분묘의 출토복식을 통해 본 조선전기의 斂襲衣에 관한 고찰', 1998, p.281, (榮州市編, 「判決事 金欽祖 先生 合葬墓 發掘調查 報告書」).

13) 柳喜卿 의, 前掲書, 1989, p.181(溫陽民俗博物館).

쌍의 길고 넓은 고름으로 바뀌었다. 衣와 裳의 比는 1:1에서 1620年代에는 1:2에 이르고 이후 서서히 증가하여 말엽에는 1:3정도였다<sup>14)</sup>.

그 用途는 朝鮮初에 이미 歌童戎服(樂學軌範), 軍士들의 侍衛服(世宗實錄, 世宗 7年 4月)으로 사용되었으며 袞龍袍의 裏衣로 明에서 賜與된 이후에는(世宗實錄, 世宗 26年 3月) 士大夫의 燕服, 便服의 表衣 및 直領 圓領의 裏衣로 널리 사용되었다. 또한 壬亂을 前後로 帖裏는 戎服으로 定着되어 上下 구별없이 착용되고 亂中에는 公服의 역할까지 하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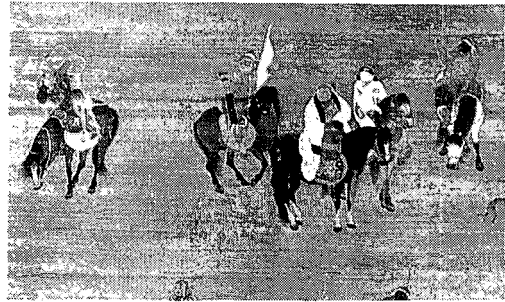
壬亂 後 士大夫官袍의 裏衣에는 襪衣가, 表衣에는 直領, 道袍가 주로 사용되면서 帖裏는 戎服의 機能인 郊外 動駕時의 服裝에 限할 정도로 그 사용이 줄었으나 여전히 武官들의 平常服, 下級職의 通禮服으로 사용되었는데, 朝鮮末 廣袖衣 폐지 및 고종 32년 西歐式 육군복장이 시행됨에 따라 소멸되었으며 이후는 주로 武官의 服裝을 따르는 巫堂들의 옷차림에서나 다소 그 모습이 잔존할 뿐이다<sup>15)</sup>. 그러나 이처럼 帖裏가 上下 귀천없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身分과 用途에 따라 服制의 區分이 엄격하였던 朝鮮朝의 衣服制度를 감안해 볼 때에 특이한 樣相이다.

이상으로 철릭은 高麗後期에 需用되어 朝鮮末까지 사용되는 동안 名稱, 色, 形態上에 變遷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Ⅲ. 철릭과 質孫과의 關係說

先行研究는 '天翼은 高麗時代 蒙古服飾의 質孫의 遺形이며, 明에서는 이를 腰線襖子로서 下賤人의 服으로 「大明集禮」에 圓領으로 圖載되어 있다.<sup>16)</sup>라고 하고 있다.

이처럼 철릭이 元代 質孫의 遺形이라는 見解가



<그림 1> 質孫

元世祖 出獵圖(중국고궁박물관 소장)

(출처: 周汎, 高春明(1991), 「中國歷代服飾」, p.213)

있다. 質孫은 '一色衣'란 意味로 天子에서 賤人에 이르기까지 널리 着用되었던 元代의 服이다. 이것은 中國의 傳統의 大袖長袍와 相反되는 意味의 服으로 着用되었다<sup>17)</sup>는 내용은 전기에 의한 결론에 일치한다. 狩獵服으로 着用한 例가 元 世祖 出獵圖(그림 1)에 보이는데 그 詳細한 形制는 알 수 없으나, 明 宣宗 行樂圖의 馬上衣와 類似하다.

즉 色과 주름의 모양(元 世祖의 衣服은 紅色이고 주름이 一定치 않으며 明 宣宗의 衣服은 黃色이고 주름 간격이 넓고 一定하다)의 差異를 제외하면 直領의 여밈이 깊고 窄袖이며, 帶位置가 比較的 下位인 點등은 같다. 또 이는 樂學軌範의 철릭과 比較해 볼 때 共通되는 形態上의 特徵이라 하겠다<sup>18)</sup>.

이로써, 조선시대 철릭과 質孫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앞의 내용에서 帖裏가 質孫의 영향을 받은 服飾으로 발표되었으나 이는 몽골어 텔릭(Telig)으로써 차용어임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테릴릭(Terlig)도 있는데 다소의 차이가 있다<sup>19)</sup>. 이들을 살펴보면

14) 柳喜卿 외, 前掲書, 1989, p.181-182.

15) 柳喜卿, 金美子, 姜淳弟, 'V. 激襲衣', 1989, p.181, (溫陽民俗博物館編, 安東金氏墳墓發掘調查報告書).

金贊珠, '철릭에 관한 服飾史的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p.45.

文明娟, '帖裏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p.73.

金正子, '帖裏考', 服飾, 韓國服飾學會, 第 8號, 1984, p.60.

16) 金東旭, 「李朝前期服飾研究」.

17) 王宇清, 「中國服裝史綱」, 臺北, 1967, p.168.

18) 金贊珠, '철릭에 관한 服飾史的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0, pp.7~8.

다음과 같다.

Telig이 명칭은 몽골어로 Cuba (ujuj-우우지) degel-un adali böged mangnug-tur quniyasu tatagsan-yi 인데 직역하면 마고자와 비슷하며 龍緞으로 만들고 주름이 잡힌 옷이다.

Terlig이 명칭도 몽골어로 Köbüngtei urtu ogur de-bel인데, 이는 긴 솜옷(dcgel)이다.

그런데 현대는 dang terlig이라는 명칭으로 여름에 입는 솜 없는 옷이다. 그리고 Köbüngterlig의 명칭은 가을에 입는 솜옷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상의 복식은 몽골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통용되고 있는 평상복을 말한다<sup>20)</sup>고 하는데 Telig이 우리의 帖裏 형태임을 알 수 있으며 전기 중세에는 몽골 차용어들이 漢子로 기록되었는데<sup>21)</sup> 帖은 tie, 裏는 li 음을 차용한 漢子式 표기법임을 알 수 있다. 이는 明代의 服飾中에 貼(帖) 裏(里)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sup>22)</sup>. 그러므로 帖裏는 몽골어 텔릭(Telig)이라는 용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質孫의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質孫服은 內庭大宴인 質孫宴에 입는 복식인데<sup>23)</sup> 일정한 제도가 없이 天子로부터 百官 樂工 衛士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를 입었으며 衣料, 色, 精粗 등으로 上下를 구분하였다. 특히 天子로부터 賜與받는 경우가 많았다. 일찍이 漢인들이 一色衣 또는 明代에 裋褐의 일종으로 설명하였는데 一色衣란 衣服과 冠帽을 一色으로 갖춘다는 의미로 보이며 紅, 黃, 粉紅의 衣服에는 紅金答子暖帽을 쓰고 白粉皮服에는 白金答子煖帽을 갖추는 것 등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天子의 質孫服은 冬服 十一口等 夏服 十五等이 있어 화려한 衣料와 보석으로 장식된 冠을 착용하였으며 百官은 冬服 九等 夏服 十四 등이 있어 衣料와 色으로 구분하였다<sup>24)</sup>.

한편, 「元史」<sup>25)</sup>에는 質孫이 漢語로는 一色服이라 하는데 內庭大宴에 입되 冬夏가 다른 의복이고 그렇다고 반드시 정해 놓은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勳戚·大臣·近侍에게 사여하며 아래로는 樂工·衛士에 이르기까지 모두 착용하는데 그 정교함과 거친 정도로 상하계급을 구분하여 비록 같지는 않아도 이를 통틀어 質孫이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만으로는 실제 質孫의 形制를 알 수 없고 단지 一色服이라는 것만이 확실한데 一色服의 의미가 애매하여 두 갈래의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周錫保<sup>26)</sup>의 견해처럼 의복과 冠의 색상이 동일하여 一色服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결혼연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복색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一色服이라 할 수도 있다. 특히 「동방견문록1」<sup>27)</sup>에 의하면 新年 및 大汗의 誕生日 등 1년에 13회의 의식이 행해지는데 그 때마다 귀족에게는 정해진 의상이 하사되며 大汗과 귀족은 같은 의상으로 장식에만 차이를 둔다고 하는데 의복의 색상도 역시 같다고 한다.

또한 元代에 상하계층에게 착용되었던 質孫은 明代에 이르러 하위관직인 校尉의 冠服으로만 착용되고 있어<sup>28)</sup> 착용범위와 착용자가 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29)</sup>.

質孫에 대해서 周錫保<sup>30)</sup>는 상하가 연결된 의복으로 衣는 비교적 밀착된 형태이고 裳 역시 짧고 허리

19) 朴聖實, 「朝鮮前期出土服飾研究」, 世宗大學校 大學院 家政學科 博士學位論文, 1992, pp.115~116.

20) 수미야 바타르, 몽골 사회과학원 교수 제공(단국대학교 연구교수), 朴聖實, 前掲書, 1992, p.115 재인용.

21) 리득춘, 「조선어 어휘사」, 연변대학 출판사, 1987, pp.78~79.

22)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中國友誼出版社, 1984, p.398.

23) 수미야 바타르 교수 談, 淵鑑類函 附索隱, 十一, p.6571, 朴聖實, 前掲書, p.115. 재인용.

24)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1991, p.354~355, 398참조.

25) 「元史」卷 七十八. 輿服一. 質孫漢言一色服也, 內庭大宴則服之, 冬夏之服不同, 然無定制, 凡勳戚大臣近侍賜則服之, 下至於樂工衛士, 皆有其服精粗之制, 上下之制, 雖不同, 總謂之質孫云.

26)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台北: 丹青, 1986, p.374.

27) マルコポーロ 「東方見聞録」, 青木富太郎 譯, 東京: 社會思想社, 86~87, 1983.

28) 「明史」卷 六十七. 志. 第四十三, 輿服三.

29) 李恩珠, 「철릭의 명칭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제12권 3호, 1986, p.365.

30) 周錫保, 前掲書, 1986, p.375.



&lt;그림 2&gt; 曳撒

(출처: 심중문(1981), 「중국고대복식연구」, p.425)

에는 주름이 잡혀있어 기마에 편리한 용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質孫은 一色衣로서 明代의 裋撒(曳撒 또는 一撒)(그림 2)과 같은 옷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필자의 견해로는 ‘一色’과 ‘裋撒’·‘曳撒’·‘一撒’이 중국음으로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周錫保의 견해는 질손의 형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즉 質孫은 一色이고 一色은 曳撒이므로 質孫은 곧 曳撒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이다<sup>31)</sup>. 曳撒의 形制에 대해서 「明宮史」<sup>32)</sup>에는 뒤는 상하 절단되지 않고 양옆은 트였는데 무(耳)가 있으며 앞은 상하 절단되어 아래에는 馬面褶이 있다고 언급되어 있고 조선조의 「礪溪隨錄」<sup>33)</sup>에도 明의 衣撒直領이라는 기록이 보이나 衣撒은 曳撒과 동일복식임을 알 수 있고 그 제도는 앞은 칠릭과 같고 뒤는 직령과 같다고 하여 「明宮史」의 설명보다도 훨씬 명료하게 언급하고 있다. 단 質孫과 曳撒과의 차이는 양옆의 트임에 있어, 質孫은 두루 막혔고 曳撒은 트임이 있다고 하는 설도 있으나<sup>34)</sup> 그 근거가 확실치 않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도 質孫의 形制는 앞은



&lt;그림 3&gt; 飛魚服

(출처: 周錫保(1983), 「中國古代服飾史」, p.398)

철릭형이고 뒤는 직령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元史」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質孫이 한 形制만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形制 중에서 후에 점차 한 形制로 정착되어 간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sup>35)</sup>.

한편, ‘一色’·‘裋撒’·‘曳撒’·‘一撒’ 등의 어휘가 중국 한자음으로는 거의 유사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결국 ‘一色’에 대한 同音異字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 나라의 문헌 중에도 고려 말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朴通事」의 언해본<sup>36)</sup>에 帖裏라는 어휘와 함께 別個의 복식으로 ‘曳撒’이라는 명칭이 있고 이를 ‘이삭’·‘이삭’·‘이삭’으로 언해하고 있으니 ‘이삭’이라는 것은 ‘一色’이라는 어휘에서 나왔을 것으로 생각되며 元代的 「碎金」이라는 문헌에도 그 명칭이 보이니<sup>37)</sup> 明代 이 전에 이미 있었던 복식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철릭과 질손과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자료로서, 「고려사」에 忠烈王이 元의 只孫宴에 참석했다는 기록<sup>38)</sup>을 볼 수 있다. 只孫은 質孫과 같은 것으로 「元史語解」<sup>39)</sup>에도 ‘只孫’이 ‘質孫’·‘濟遜’·‘直孫’으로 표기되기도 했으며 그 의미는 顏色이라고 한다. 이 어휘는 원래 몽고어로서 그 발음이 (zisun) 이

31) 李恩珠, 前掲書, p.365.

32) 明呂岱, 「明宮史」卷三, 內臣服佩, ‘其製後襟不斷而兩傍有擺前襟兩載而下有馬面褶兩傍耳’.

33) 柳馨遠, 「礪溪隨錄」卷二十五, ‘武槿容出奉 穿衣撒直領 其制前貼裡後如直領左右兩旁各有袋褶’.

34) 周錫保, 前掲書, 1986, p.375.

35) 李恩珠, 前掲書, p.365.

36) 「朴通事譯解」上, 二十五.

37)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香港: 商務印書館香港分館, 1981, p.370.

38) 「高麗史」, 世宗 卷第三十一, 忠烈王 四 二十六年 六月 ‘王至上都謁帝于機殿仍獻方物帝大設只孫宴’.

기 때문에 同音異字의 한자표기가 다양하게 된 것이며 현재 우리에게만 한자 '質孫'이라는 어휘가 익숙하여 /질-손/이라 하지만 원음은 (zisun) 이라고 하겠다. 근대 몽고어에서도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色, 용안, 외모, 도료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sup>40)</sup>.

이러한 여러 종류의 質孫服 가운데 衣 裳式의 帖裏形態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帖裏의 形制가 간편하여 武官들의 戎服이나 馬上衣로서 애용되어 점차 널리 보급된 것으로 생각된다<sup>41)</sup>. 明代의 帖裏는 다양한 종류로 분화되었는데 帖裏외에 順折, 大折, 襖撤, 程子衣, 褲習 등과 賜服中 鹿其麟服 飛魚服(그림 3) 등<sup>42)</sup>의 襖積袍類가 있다.

이는 元代의 賜服制度의 遺習으로 보인다. 위의 服飾들은 衣 裳式의 형태이나 깃과 주름의 모양으로 구분되고 있다. 帖裏는 紅貼里, 靑貼里가 있는데 紅貼里에는 補子가 달렸으며 內臣들의 복장이었다. 또한 가슴, 등, 소매, 무릎 등에 蟒襪을加해 一名 三貼里로 지칭되기도 하였는데 기록으로 미루어 상당히 화려한 服飾이었다. 이와 유사한 형태가 賜服중 기관복 비어복으로 보이는데 出土實物이 山西省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sup>43)</sup>.

그리고 老乞大에는 '柳祿羅袖褶兒 판근뉴청노그는 줄음털릭', '銀褐紵絲板褶兒 은빛채비단너븐주름털릭'으로 諺解하고 朴通事에는 '刺通袖膝襪羅帖裏上스매으르 내치질호고 膝襪 호羅 털릭'이라 諺解하고 그 註에 이르기를 元代에 많이 착용되었는데 胸背와 肩 袖存 袖口가 연결되어 무늬가 있었고 무릎주위에도 무늬(草樹 禽獸 山川 宮殿 등)가 있어 欄干 같았

으며 圍領으로 착용하였고 단추가 달렸으며 값도 비싸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sup>44)</sup> 비어복(그림 3) 또는 기관복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자료로 철릭과 質孫과의 관계를 정리해 보면 質孫은 曳撒와 같은 것으로 앞은 철릭형, 뒤는 직령형인 元代의 服飾이므로, 상하 연결되어 앞뒤에 모두 벽적이 있는 철릭과는 그 形制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襖積袍類라는 공통점과 元代의 복식이라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철릭은 역시 元代의 다양했던 벽적포류 중의 하나라고 하겠다<sup>45)</sup>.

또한 철릭이 몽고복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는 '鄭石歌'에 보이는 '털릭'이라는 어휘가 몽고어임을 밝히는 것이다. '鄭石歌'는 그 형식이나 어법, 내용, 情調 등으로 미루어 보건데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며 '털릭'이라는 어휘는 몽고어일 것으로 추측된 바 있다<sup>46)</sup>. 李基文<sup>47)</sup> 역시 몽고가 元代에 남긴 우리언어의 잔재 중에 특히 군사와 관련된 어휘로 무관의 옷인 '털릭(帖裏)'을 포함시키면서 몽고 文語인 'terlig'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한편 중국의 '帖裏' 즉 '터리'<sup>48)</sup>가 몽고에는 'terlig' 즉 (터릭)·(털릭)으로, 우리나라에는 (털릭)으로 전래되었다고 하기보다는 의복 자체가 몽고의 것일 뿐 아니라 어휘 자체도 몽고의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털릭)으로 전래되었고, 중국에는 音韻尾의 문제<sup>49)</sup> 때문에 중성이 없어진 (터리)로 전래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털릭'은 역시 몽고어에 그 기원을 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원형은 元代 몽고족의 襖積袍類에 있다고 하겠고 질손 역시 철릭

39) 「元史語解」卷二十四. 名物.

40) 日本陸軍省編, 「蒙古語大辭典(上)」, 1513, 1982.

41) 朴聖賢, 「朝鮮前期 出土服飾 研究」, 1992, p.116.

42) 周錫保, 前掲書, pp.381~382.

43) 周錫保, 前掲書, pp.389~391, 398.

44) 朴通事 諺解 p.53.

元時好着此衣前後具胸背又連肩而通袖之脊至袖口爲紋當膝周圍亦爲紋如欄干然織成段匹爲衣者有之或皮或帛用採線周遍回曲爲緣如花樣刺爲草樹禽獸山川宮殿之紋於其內備極哥巧階用圍領着之其直甚高達達之俗今亦猶然 崔윤실로치질호니를 呼爲刺亦曰刺骨.

45) 李恩珠, 前掲書, p.365.

46) 梁柱東, 「麗諺叢法」, 서울: 울유문화社, 1955, pp.334~344.

47) 李基文, 「國語史概說」, 서울: 塔出版社, 1983, pp.100~101.

48) 「譯語類解」上, 服飾編, 서울: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974, p.90.

과는 별개의 복식으로 벽적포류 중의 하나라 하겠다<sup>49)</sup>.

따라서 철릭은 고려중기 이후 원의 다양했던 褰積袍類 중에서 전래된 것으로 質孫과는 별개의 服飾이므로 天翼은 高麗時代 蒙古服飾의 遺形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 IV. 朝鮮時代 初期 철릭의 특징

##### 1. 朝鮮時代 初期 철릭의 일반적인 특징

朝鮮時代 初期의 철릭 형태는 성종대의 문헌인 「樂學軌範」에 보이는 帖裏, 防衣와 같은 圖上과 그 간 조선 초기로 판명되거나 추정된 묘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초기의 묘인 遼愍(1447~1524), 金欽祖(1461~1530), 順天金氏(?~1530), 高雲(1479~1530) 등의 분묘에서 출토된 철릭 유물을 통해 초기 철릭의 실제적인 형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조선 초기의 형태와 형태변화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 전기 중에서도 초기의 철릭은 전체 유형에서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철릭의 길이는 115cm~130cm 정도로 비교적 긴 길이이다. 상의가 길고 하의가 짧은 衣長裳短形式으로 상하비율은 1.2:1이었다. 반면 조선 중기로 가면 대부분 1:1.7 정도로 裳이 길어진다.

철릭의 길이는 16세기 후반을 기점으로 그 전반부는 짧고 후반부터는 길어지는데 그 이유는 전자는 공복(公服)의 받침옷으로 사용되기 때문이고 후자는 용복(戎服)으로 사용되므로 의복의 역할에 따른 차이로 생각된다.

한편 철릭은 다른 포류의 길이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짧은 편이다. 연산군 11년(1505)에 朝士의 철릭을 답호나 단령보다 짧게 만들도록 하였다<sup>51)</sup>는 기록을 볼 수 있는데, 조선 전기에는 규정이 지켜지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깃은 이중깃이며 소매는 직선이거나 직선에 가까운 곡선을 나타내고 진동과 수구의 차이가 거의 없다. 중종대에 이르기까지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철릭에는 단, 겹, 유 유형이 있으며 유창면주, 초록면주, 백면포 철릭이 많았고 그 외에 남단자나 남비단, 주황단자, 도홍저사, 필단, 有色綿紬, 정주, 주, 홍주, 압두복주, 흑마포, 백저포 등의 것도 있었다<sup>52)</sup>.

裳의 폭수는 필단폭(匹緞幅: 55~66cm)으로는 8~9폭, 명주는 13~14폭으로 하였다. 정종 때 사치금제(奢侈禁制) 조목(條目)에 사족(士族)의 철릭 裳은 13폭, 서인(庶人)은 12폭을 넘지 말도록 하였고, 진상(進上)철릭은 14폭을 넘지 말도록 하였다<sup>53)</sup>. 그러나 출토철릭의 폭이 보통 12~14폭인 것을 보아 이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초기의 철릭 유물일지라도 시기에 따라 전체 길이, 상하비율, 옆선길이, 깃 유형, 고름의 크기, 소매 형태 등에서 대체적인 경향 차이가 나타나며 그 외에 주름 유형이나 주름 간격, 어깨바대, 겨드랑무의 유무, 고름 유형, 소매 유형 등에서 개별적인 차이를 보인다<sup>54)</sup>.

##### 2. 朝鮮時代 初期 墳墓에서 출토된 철릭의特徵

우리나라 출토복식은 대부분 조선시대 유교의 영향으로 인한 상장례(喪葬禮)의 결과로서 그 내용에는 시신이 착용하고 있던 襪衣와 관의 빈 공간을 채우던 補空服飾으로 피장자의 생존 당시 착용복식인 그 당시의 일상복식에 해당된다. 이러한 출토복식은 부장된 間札 출토지역과 후손들의 족보 등에 의해 시대 추정이 가능하며 그 시대는 그 시대의 전후를 중심으로 출토복식의 시기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수의와 보공복식 모두가 과거 내세관의 상징으로써 현세의 지속적인 삶에 대한 사상에 근거

49) 1. 버나드 칸그랜, 「古代漢語音韻學概要」, 崔玲愛譯, 서울: 민음사, 1985, p.47.

2. 허웅 「국어음운학」(1986) 서울: 샘문화사, p.238.

50) 李恩珠, 前掲書, p.365.

51) 《燕山君日記》卷 第五十八 十一年 六月 · 戊寅.

52) 이은주, '김홍조(1461~1528) 분묘의 출토복식을 통해 본 전기의 欽襲衣에 관한 고찰', 1998, p.218.

53) 成宗實錄 卷十二, 十八, 成宗二年十二月 壬申 三年 正月 己未 榮州市編 「判決事 金欽祖 先生 合葬墓 發掘調査 報告書」, 1998.

54) 李恩珠, '16세기 전기 철릭의 구성법인데' 복식문화학회지, 제7권 제2호 p.243.



한 것으로 보공복식은 착용복식으로 당시의 일상복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습의란 염(斂)할 때 서신에게 입히는 옷, 곧 통칭 수의(壽衣)를 말하며, 산의(散衣)란 보공품(補空品)으로서 평상시 고인이 입었던 의류로써 이를 삼는다.

그러므로 습의에 있어서는 그것이 고인의 마지막 성장(盛裝)이기 때문에 정장(正裝)을 하게 되어 있어 관복(官服)을 비롯하여 평례복 등이 포함되고, 산의에 있어서는 평상복 또는 파륙 등으로 이를 채우게 되어 있다<sup>5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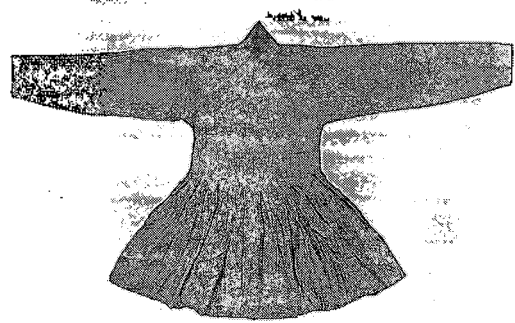
이것들은 《사례편람(四禮便覽)》〈상례조(喪禮條)〉<sup>56)</sup>에 그 대표적인 예가 실려 있거니와 여기에서는 각각의 《신종록(愼終錄)》<sup>57)</sup>에 자세한 물목이 적혀 있다.

이렇듯 女子 또는 男子 피장자의 墳墓에서 각각 다른 性別의 服飾이 出土되고 있다. 女子 피장자의 분묘에서 出土된 男子服飾은 女子가 실제 착용했던 服飾이 아니라 산의(散衣)로서 관을 채우기 위한 보공품인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女子의 墳墓에서 男子服飾이 출토된 경우일지라도 女子가 착용했던 服飾이 아니었음을 습의의 禮에 의해 입증하기 위해 조선초기 출토 유물중 邊脩(1447~1524), 金欽助(1461~1528), 順天 金氏(?~1530), 高雲(1479~1530) 등의 墳墓에서 출토된 철릭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 1) 邊脩(1447~1524) 분묘 출토 철릭(58)의 일반적인 특징

변수묘에서 수거된 12점의 철릭은 조선 초기에 해당된 것으로 단일 복식류 중에서 철릭의 양이 가장 많다. 이 철릭(그림 4)의 특징은 깃의 형태가 이중 깃이며 소매통은 좁으며 배래는 수구쪽을 향하여 좁아지는 형태로 양쪽 소매나 왼쪽 혹은 오른쪽 소매에 매듭단추를 달아 기능적으로 소매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 한 것 등이 있다.



<그림 4> 邊脩(1447~1524)묘 출토 철릭(유물 55)  
(출처: 국립민속박물관편(2000), 「원주번씨 출토유물 기증전」, p.37)

상(裳)허리에는 0.1cm~0.3cm로 촘촘히 또는 굵게 주름이 잡혀 있으며, 전체적으로 바느질이 대단히 섬세하다. 철릭에는 화려한 금선이나 단을 이용한 고름바대가 사용되었고, 숨을 넣은 유철릭의 바느질에는 한지가 사용되었는데, 동시대의 바느질법으로 추정된다.

훈옷에는 대체로 어깨바대를 대는데, 세쪽형과 한쪽의 반달형이 보인다.

직물은 종종대 직물사치에 언급이 많은 것을 증명하듯이 면주(綿紬), 연화만초문(蓮花蔓草紋), 견(絹), 운문단(雲紋緞), 소단(素緞), 라(羅)등을 사용하였다.

유물의 색상은 본래는 다양하였을 것이나 현재는 갈색을 띠는 것이 많다.

중요 부분의 첫수로는 총 길이 117cm~127cm, 화장 109.5cm~121cm, 품은 55cm~62cm이다.

#### 2) 김흠조(1461~1528) 분묘 출토 철릭의 일반적인 특징

16세기 전기에 해당되는 김흠조(1461~1528)의 묘에서 수거된 12점(유물 21~32)의 철릭은 조선 전기 중에서도 초기의 것에 해당된다.

55) 유희경, '斂襲衣', 1989, p.169 (溫陽博物館編 「安東金氏 墳墓 發掘 調査 報告書」).

56) 《사례편람(四禮便覽)》〈상례조(喪禮條)〉

57) 《신종록(愼終錄)》.

58) 국립박물관편, 「오백년의 침묵, 그리고 환생(원주번씨 출토유물기증전)」, 2000, p.32참조.

김홍조의 묘에서 출토된 단일 복식류 중에서는 철릭의 양이 가장 많다. 12점의 철릭은 이장 후에 유물 수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용도의 염습으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다. 단 정 3품 당상관으로서 생시에 착용했던 용복용 철릭과 편복용 철릭, 사후 친지들이 보낸 遂衣用 철릭이었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sup>59)</sup>.

《실록》에는 홑[單], 겹[袂], 솜[袂] 철릭이 기록되어 있다. 철릭 역시 답호와 마찬가지로 ‘或顯惑倒’ 원칙에 의해 솜의와 대소림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서에 솜옷(襦衣)은 본래 염습의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세속에서는 물론, 왕실에서도 사용하였음을 기록이나 출토복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 속을 채우는 데는 부피가 큰 솜 철릭이 적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60)</sup>. 조선 전기의 철릭 유물 중에는 이외에 누비[紵]도 있지만 본 묘에서는 누비 철릭이 한 점도 수거되지 않았다. 襦철릭 2점(유물 21, 31), 袂철릭 3점(24, 25, 28), 單 철릭 7점이 수거되었을 뿐이다(그림 5).

한지를 삼지로 사용한 경우가 눈에 띈다<sup>61)</sup>. 겹 철릭 중에 한지를 사용한 경우(유물 25)가 있고 솜 철릭 중 한 점(유물 21) 역시 홍계강이 솜 철릭처럼 명주(겉)-한지-솜-명주(안)로 구성하였다. 안감 안쪽에 솜을 놓고 그 위를 한지로 덮어서 마치 한 장의 안감처럼 바느질하였다.

### 3) 順天金氏 (?~1530) 墳墓 出土 철릭<sup>62)</sup>의 일반적 특징

이 의복은 1977년 4월 忠北 清原郡 北一面 外南里 玄洞에서出土되었고, 蔡基秀(1922年生)의 12代 祖母인 順天金氏의 것이다. 衣服의 着用年代는 1530年



<그림 5> 金欽祖(1461~1528)묘 출토철릭(유물 24)  
(출처: 영주시편, 「판결사 김홍조 선생 합장묘 발굴조사 보고서」, 1998, p.8)

代<sup>63)</sup> 前後로 보이고, 이 의복도 金氏夫人의 棺 속에 副葬한 것이다. 따라서 같이 副葬된 簡札과 더불어 부장된 의복중 철릭만을 살펴보고자 하며 그것의 특징과 형태, 치수는 다음과 같다.

#### (1) 모시 帖裏

白色 細모시 혼옷으로 만들었으며 소매는 진동에서 거의 같은 넓이의 직배래로 소매부리 부분이 치수가 5cm 가량 줄어든 형태이다. 깃의 모양은 이중 괄갓이며 2cm 넓이의 끈이 여밈의 수단으로 되고 있다. 또한 화장의 길이가 매우 길다.

衣와 裳의 길이 비율은 1:1.2정도로 다른 遺衣보다 裳의 길이가 짧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형태는 李尙翊의 燃藜室記述 別集 卷 十三에 許謙의 庶曾孫 興善이 曾祖父 遷葬 改棺時 帖裏 襲用한 것을 보고 衣는 크고 길며, 裳은 크고 짧은 것이 今人 着服과

59) 李恩珠 '16세기 전기 철릭의 구성법 일례(-金欽祖(1461~1528)분묘 출토의 철릭을 중심으로-)' 服飾文化學會誌, 제7권 제12호, 1999, pp.245~246.

60) 李恩珠, '金欽祖분묘의 출토복식을 통해 본 조선전기의 敍襲에 관한 고찰', 1998, p.218.

61) 국립박물관, 「원주번씨 출토유물 기증전」, 2000, p.36(유물 54, 帖裏).

p.39(유물 59, 帖裏), p.40(유물 61, 帖裏), p.41(유물 63, 帖裏), p.42(유물 64, 帖裏).

이은주(1998), '金欽祖(1461~1528) 분묘의 출토복식 자료분석', p.273, p.279(帖裏 유물 21), p.283(帖裏 유물 25) (榮州市 「判決事 金欽祖先生 合葬墓 發掘調査 報告書」).

안명숙, '출토복식의 종류 및 특징', 2000, p.57, (갈색명주검철릭 2), (광주민속박물관 「霞川高裳」출토유물)

62) 金東旭, 高福男, '出土 朝鮮時代 遺衣의 服飾史의 研究', 韓國服飾學會, 1978, p.10.

63) 그의 夫人인 蔡無擇의 卒年이 1537년(高宗 32年)이고, 婦人은 과수덕으로 살다가 돌아가셨다는 記錄이 있으므로 衣服의 着用年代를 1530年으로 봄.

다르다<sup>64)</sup>라고 한 內容에 부합되는 형태라 하겠다.

중요 부분의 첫수를 보면 총 길이 111cm, 뒷 폭 70cm, 화장 143cm이다. 또한 허리 아래로 잡혀있는 0.1cm 가량의 좁은 주름을 허리선에서 1.5cm 아래까지, 눌러 박아준 것이 特徵이라 하겠다.

## (2) 겹누비 帖裏

겉은 褐色 明紬, 안은 白色 明紬로 되어 있으며 옷 全體에 누비 간격 9cm로 하여 세로방향으로 누빈 것이 特徵이라 하겠다. 소매의 형태는 모시 帖裏와 비슷하며, 옷깃 역시 이중 칼깃인데 여기에는 흰색 등경이 달려 있다. 치와 裳의 길이 비율은 1:1.2 이고, 하상의 주름 분량을 허리선 1.5cm 아래까지 눌러 박았다. 여밈 수단인 고름은 걸깃 끝에 3cm 넓이, 35cm 길이의 끈을 달았고 허리선에도 같은 길이의 끈을 달아 여몄다. 중요 부분의 첫수로는 총 길이 112cm, 뒷길이 75cm, 화장 121.8cm이다<sup>65)</sup>.

이렇듯 順天金氏 女子의 墳墓에서 철릭이 출토되었다. 따라서 선행연구는 '철릭은 朝鮮初期의 경우 二重깃으로 男子는 물론 女子도 着用하였다는 事實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로 보아 지금까지 天翼은 우리나라에서 男子만이 입었던 것으로 알고 있던 것<sup>66)</sup>이 女子도 天翼을 입었던 새로운 사실을 찾아내게 되었다<sup>67)</sup>.'라고 하고 있다.

順天金氏 墳墓出土 보고서 발표이후 女性 철릭 착용설에 관한 理論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金東旭은 '...金氏夫人이 平素 着用하였던 것을 棺 속에 副葬한 것이다<sup>68)</sup>. 이번에 특히 밝혀진 것은 女子도 男子와 같은 天翼을 입었다는 사실이다<sup>69)</sup>.'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金正子是 '...忠北 淸原郡 外南里에서 出土

한 順天金氏의 흰 모시 철릭과 갈색 겹누비 帖裏로 夫人도 帖裏를 입은 사실을 알 수 있다<sup>70)</sup>.'고 재인용하고 있다<sup>71)</sup>.

또한 金贊珠는 '...長興 任氏의 철릭은 順天金氏 철릭과 함께 女性 철릭 着用을 確認시켜주는 貴重な 資料이다<sup>72)</sup>.'라고 하였다.

그리고 안명숙은 '...최근의 철릭에 대한 학설은 남녀 모두 착용했고, ...<sup>73)</sup>'라고 하고 있다.

이렇듯 順天金氏(?~1530) 여자의 분묘에서, 또 長興任氏(1590년대) 여자의 분묘에서도 유의로서 철릭이 출토되었다. 다시 말해서 忠北 淸南郡 外南里에서 출토한 順天 金氏의 흰 모시 帖裏와 갈색 겹누비 帖裏 등으로 인해 順天 金氏가 평소 착용했던 것을 부장하였으므로 女性도 帖裏를 착용했다고 보는 견해이다.

따라서 이로 인해 順天金氏(?~1530)와 長興任氏(1590년대)의 遺衣로서, 피장자가 女性인 까닭에 女性의 帖裏着用說이 1978년에 順天金氏 墳墓 出土 報告書에 발표되었으며 그 이후 이 견해가 정설이 되었다.

그러나 이는 당시 배우자 옷을 부장하는 수례(槨禮)관행의 보공품으로서 철릭이 출토된 것으로 철릭은 남자들이 착용했던 복식이라고 추정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安東金氏 墳墓發掘調査報告書」(1989년) 殮襲衣 맺음말에, 부인의 관속에 남편의 옷이 들어 있다. 곧, 金炳國의 부실인 김해허씨의 묘에서 남자 저고리가 하나 나온 것이며, 遺衣는 나타난 바 없으나 金貞圭의 부인 한산이씨의 幃終錄에도 남편의 것이라 할 전복과 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이러한 풍습이 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64) 李肯翊, 燃藜室記述 別集 卷十三.

許謙 庶曾孫興善 嘗言 其曾祖遷葬改棺時 見之襲用帖裏 而上衣 太長下裳太短 異於今人 所服云.

65) 文明姬, '帖裏에 관한 研究',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衣類織物學科 1980. pp.26~27.

66) 崔南善, 朝鮮의 常識.

67) 金東旭, 高福男, '出土 朝鮮時代 遺衣의 服飾史의 研究' 服飾, 第二号, 韓國服飾學會, 1978, p.20.

68) 金東旭, 高福男, 前掲書, p.1.

69) 金東旭, 高福男, 前掲書, p.19.

70) 金東旭, 高福男, 前掲書, p.20.

71) 金正자, '帖裏考', 韓國服飾學會, 服飾, 第 8號, 1984, p.60 재인용, 김정자, 견개서.

72) 金贊珠, '철릭에 관한 服飾史의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p.28.

73) 안명숙, '뽕출토복식의 종류 및 특징', pp.47~48(光州民俗博物館 澗川高雲 출토유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sup>74)</sup>라는 견해가 제언된 바 있다. 그리고 《禮記》, 《喪大記》<sup>75)</sup>를 비롯하여 《주자가례》<sup>76)</sup>에는 古來로부터 친자, 형제, 봉우, 군으로부터 제물로서의 옷을 받는 襚禮의 관습이 있었다고 언급되어 있다. 《儀禮注疏》에 의하면 親者襚는 대공 이상이 하는 것이고 庶兄弟襚는 소공, 시마의 친척들이 하는 것<sup>77)</sup>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贈儀로 받은 옷을 襚衣라고 하는데 이는 습에는 사용하지 않고 대소범에만 사용<sup>78)</sup>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문헌 《사례편람》에도 친우의 襚가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아 친우의 옷을 관속에 넣는 수례풍습은 조선 후기까지도 지켜졌던 관행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조오례》에는 특별히 수례에 언급한 부분이 없다. 그러나 《실록》에는 왕이 殮衣를 부의로 내린 기록<sup>79)</sup>이 보인다.

그리고 16세기 후반 義城의 농학자였던 鶴川 朴承(1520~1577)이 ‘남편의 관속에 아내의 의복 일습을 넣거나 아내의 관 속에 남편의 의복 일습을 넣는 풍속은 예에 어긋난 것이니 따르지 말라<sup>80)</sup>’고 지적한 내용을 미루어 보아 禮는 아닐지라도 당시 배우자의 옷을 부장하는 수례관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81)</sup>.

또한 궁중의 《빈전도감의궤》에 의하면 1600년의 懿仁王后 殮습 의대 중에 宣祖의 것으로 추정되는

도포와 철릭이 각각 1점씩 포함되어 있다<sup>82)</sup>. 그리고 17세기말의 洪禹協(1655~1691) 묘에서 출토된 복식 중에도 부인과 아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복식류가 포함<sup>83)</sup>되어 있다.

따라서 중종대에도 襚衣 제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본 분묘에서 출토된 제문이나 만사의 사정으로 볼 때 출토된 복식 역시 김흥조 一人의 옷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을 듯하다<sup>84)</sup>.

또한 碧珍李氏 李玉衡(?~1585년)(宣祖18年 萬曆乙酉) 분묘는 합장묘가 아님에도 배위의 여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당시의 장속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사후 영혼의 결합을 의미하며<sup>85)</sup> 이러한 경우는 종종 발견되고 있다<sup>86)</sup>. 등의 많은 문헌자료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 4) 高雲(1479~1530) 墳墓 出土 철릭<sup>87)</sup>의 특징

모두 6점의 철릭이 있어 출토복식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홀(單)·겹(袂)·슴(襦) 철릭 등 사계절용이 골고루 들어 있다. 유물 보존 상태도 아주 양호하며 완전한 형태(完形)를 유지하고 있어 이 당시 철릭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겠다. 겹철릭의 경우 걸감과 안감 사이에 저주지(楮注紙: 조선시대 때 닥나무 껍질로 화폐를 만들어 썼는데, 그 닥나무

74) 柳喜卿(1989), 《殮襲衣》 p.295, 溫陽博物館編 「安東金氏 墳墓 發掘 調査報告書」.

75) 《禮記》第二十一 〈喪大記〉.

76) 《家禮》卷四, 六.

77) 儀禮注疏卷十二 〈士喪禮〉十一: ‘○親者襚... (중략)... 疏(중략)... 大功以上... (중략)... 庶兄弟襚... 疏... 庶兄弟僮小功總麻之親...’

78) 《禮記》〈檀弓 下〉 ‘不釋祭服而仕遂以襚之(注)... 以此襚之者以其不用襲也. 凡襚以斂.’

79) 《世宗實錄》卷第七十八 三十七, 十九年丁巳九月 ○癸巳... (중략)... 漢原君趙瑋卒... (중략)... 知中樞院事趙末生之子也... (중략)... 贈米豆共五十石紙一百五十卷正布三十匹斂衣三襲... 《端宗實錄》卷十四 二十三, 二年乙亥六月 ○己卯壽春君瑛卒... (중략)... 令尙衣院製給斂襲衣既已製之 故特命給之...

80) 朴承, 《鶴川先生遺集》卷之二十七, ‘今俗用妻服一襲於天棺內. 夫服一襲於妻棺內 悖禮甚矣. 惟夫人慎勿用此例也.’

81) 李恩珠 ‘金欽祖분묘의 출토복식을 통해 온 조선전기의 斂襲衣에 관한 고찰’, 1998, p.213.

82) 朴聖實, 앞글, 1992, p.29.

83) 金明淑, 《洪禹協 墓 出土 17世紀 服飾論攷》, 忠北大學校 博物館, 1993.

84) 이은주, 金欽祖(1461~1528)분묘의 출토복식 자료분석 榮州市 編, 《判決事 金祖 先生合葬墓》, 1998.

85) 朴聖實 ‘朝鮮前期 出土服飾研究’,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p.299.

86) 韓國服飾, 第6號 靈岩出土金海金氏 遺物, 檀人民俗博物館, 1988. 全州李氏 陵院君出土服飾 (檀國大 民俗博物館 所藏)에도 발견되었다.

87) 안명숙 ‘출토복식의 종류 및 특징’, 2000, pp.54~61(光州民俗 博物館編, 霞川高雲 출토유물)참조.



<그림 6> 高雲(1479~1530)묘 출토 철릭(녹색명주솜 철릭)  
(출처: 광주민속박물관편(2000) 「霞川 高雲 출토유물」, p.92)

로 된 종이를 말함)가 들어 있으며, 이 저주지는 심감 및 보온용으로 사용되었다. 이 저주지의 사용은 조선 초기 출토복식 가운데 사용된 예가 많다.

출토 철릭(그림 6)의 길이는 114~126cm로 이 당시 출토된 다른 철릭에 비해 약간 짧거나 비슷하다. 130 cm가 넘는 철릭도 다른 출토유물에는 있었으나 본 출토복식에는 없었다.

철릭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상의 오른쪽 길 가장자리 한 폭은 주름을 잡지 않았다. 이는 여밈시 왼쪽 쪽과 겹쳤을 때 이종의 주름으로 인한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옛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었다. 화장은 114~119cm이며 소매는 직배래에 가까운 통수이다. 고름이 달려 있거나, 있었던 흔적이 있다. 치마폭은 총 12~14폭이나 가장 왼쪽과 오른쪽 한 폭씩은 다른 나머지 폭들과 너비가 다른 것도 있다.

깃은 이중 것으로 된 칼깃이고 안깃은 대부분 목판깃이다. 그러나 칼깃도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깃 형태가 걸깃과 안깃의 크기 차이가 많이 나므로 깃의 모양이 매끈하지 않고 가운데는 굽고 양쪽으로 가면서 안깃이 좁아지거나, 안깃이 목판깃이면 걸깃의 경우만 좁아지므로 모양이 특이하다. 홀철릭은 모두 등바대가 있고 동정은 없었으며, 겹철릭은 등바대는 없으나 솜철릭과 함께 동정을 달았다. 홀철릭의 등바대는 직선형과 반원형이 있으며, 크기도

어깨까지만 있는 것이 있고, 진동선까지 크게 달린 것도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 피장자가 女子인 順天金氏, 長興任氏의 출토 遺衣로서 철릭은 당시 배우자의 옷을 부장하는 禮禮관행의 補空品으로서 철릭이 출토되었음을 학계에서도 이미 이를 認定한 바 있다.

그러므로 先行研究에서 女性의 帖裏 着用說은 불합리하며 帖裏는 남자용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V. 結 論

본 연구는 '철릭이 高麗時代 蒙古服飾 質孫의 遺制이다.'라는 說을 규명하기 위해 質孫과의 관계를 考察하고, 또한 '철릭의 女性 着用說'을 입증하기 위해, 朝鮮時代 初期 墳墓에서 出土된 遺物中 4人의 철릭을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女性 철릭 着用說에 관한 理論을 考察한 바, 그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質孫과 철릭과의 관계에 있어서, 質孫은 曳撒과 같은 것으로 앞은 철릭형, 뒤는 직령형인 元代의 服飾이므로, 상하 연결되어 앞뒤에 모두 벽적이 있는 철릭과는 그 形制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襖積袍類라는 공통점과 元代의 服飾이라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철릭은 역시 元代의 다양했던 벽적포류 중의 하나라 하겠다.

한편 중국의 '帖裏' 즉 '터리'가 몽고어에는 'te-rlig' 즉 [터릭]·[털릭]으로, 우리나라에는 [털릭]으로 전래되었다고 하기보다는 의복 자체가 몽고의 것일 뿐 아니라 어휘 자체도 몽고의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털릭]으로 전래되었고, 중국에는 緝縵尾의 문제때문에 종성이 없어진 [터리]로 전래될 수 밖에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털릭'은 역시 몽고어에 그 기원을 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원형은 元代 몽고족의 襖積袍類에 있다고 하겠고 質孫 역시 철릭과는 별개의 복식으로 襖積袍類 중의 하나라 하겠다.

따라서 철릭은 고려 중기 이후 원의 다양했던 襖積袍類 중에서 전래된 것으로 質孫과는 별개의 服飾이므로 '天翼은 高麗時代 蒙古服飾의 遺形'이라는 실과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女性 철릭 着用說에 있어서, 順天金氏 철릭의 着用時代는 中宗朝인 1530年代 前後로 보이고 金

氏夫人이 平素에 着用하였던 것을 棺속에 副葬한 것이다. …이번에 특히 밝혀진 것은 女子도 男子와 같은 天覆을 입었다는 사실이다. 라는 說이다. 이 說을 비롯하여 앞에서 제시한 이와 같은 몇 가지 說 등이 성립되었으며, 金東旭의 '女性 철릭 着用說'이 발표된 1978년 以後 이 說이 정설이 되어 왔다.

그러나 '女性 철릭 着用說'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安東金氏 墳墓發掘調査報告書」(1989년) 殮襲衣 맺음말에, 부인의 관속에 남편의 옷이 들어 있다. 곧, 金炳國의 부실이 김해허씨의 묘에서 남자 저고리가 하나 나온 것이며, 遺衣는 나탄만 바 없으나, 金貞圭의 부인 한산이씨의 槨終錄에도 남편의 것이다 할 전복과 포가 기록되어 있다.

둘째, 《禮記》, 《喪大記》를 비롯하여 《朱子家禮》에는 古來로부터 친자, 형제, 봉우, 군으로부터 제물로서의 옷을 받는 綴禮의 관습이 있었다고 언급되어 있다.

셋째, 《儀禮注疏》에 의하면 親者綴는 대공이상인 하는 것이고 庶兄弟綴는 소공, 시마의 친척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넷째, 《사계편람》에도 친우의 綴가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친우의 옷을 관속에 넣는 수례풍습은 조선 후기까지도 지켜졌던 관행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실록》에 왕이 殮衣를 부의로 내린 기록이 보인다.

다섯째, 16세기 후반 義成의 농학자였던 鶴川 朴承(1520~1577)이 '남편의 관속에 아내의 의복일습을 넣거나 아내의 관속에 남편의 의복일습을 넣는 풍속은 예에 어긋난 것이니 따르지 말라'고 지적한 내용을 미루어 보아 禮는 아닐지라도 당시 배우자의 옷을 부장하는 수례관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궁중의 《빈전도감의궤》에 의하면 1600년의 懿仁王后 염습 의대 중에 宣祖의 것으로 추정되는 도포와 철릭이 각각 1점씩 포함되어 있었다.

일곱째, 17세기말의 洪禹協(1655~1691) 묘에서 출토된 복식 중에도 부인과 아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복식류가 포함되어 있었다.

여덟째, 中宗대에도 綴衣제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본 분묘에서 출토된 제문이나 만사의 사정으로 볼 때 출토된 복식 역시 김홍조 一人의 옷으로 단정 지을 수 없을 듯하다.

아홉째, 碧珍李氏 李玉衡(?~1585년)(宣祖18年 萬曆乙酉)의 분묘는 합장묘가 아님에도 배위의 여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당시의 장속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사후 영혼의 결합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는 종종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以上 9가지 事項으로 女性 피장자의 관속에 부장된 철릭은 女性用이 아니라 男性用 철릭으로써 女性 配位 또는 친지의 철릭임을 확증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철릭은 蒙古服飾 質孫의 遺制'가 아니며 철릭과 質孫은 별개의 襪袴袍類임을 밝힐 수 있었다.

또한 '철릭의 女性着用說'에 있어서도 女性 피장자의 분묘에서 출토된 철릭일지라도 女性의 철릭이 아닌 배우자와 친지의 철릭임을 많은 문헌자료에 의해 입증할 수 있었다.

특히, 복식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은 어느 시기에 새로운 학설이 대두되었을지라도 그 이후 많은 문헌자료와 실물이 실증된 경우 선행연구를 수정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학문에 대한 수용과 더불어 바람직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철릭은 蒙古服飾 質孫의 遺制이다'라는 理論과 철릭(帖裏)의 女性 着用說에 대한 理論을 올바른 개념으로 정리하여 재정립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본 연구자의 견해가 추후 많은 자료발굴로 인해 수정 보완해야 할 경우 또한 마땅히 수정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宣祖修正實錄》.
- 「明史」卷 六十七.
- 《宣祖實錄》.
- 朴通事 諺解 .
- 《成宗實錄》.
- 朴承, 《鶴川先生遺集》卷之二十七.
- 《世祖實錄》.
- 《四禮便覽》.
- 《燕山君日記》.

- 《傾終錄》.  
 《中宗實錄》.  
 《世宗實錄》卷第七十八.  
 《增補文獻備考》.  
 《元史語解》.  
 《家禮》卷四.  
 《禮記》第二十一.  
 《高麗史》.  
 《儀禮注疏》卷十二.
- 姜淳弟 (1981). '帖裏小考'. 성심여자대학교 논문집. 제 12호.
- 金美子 (1995). '元の 軍服. 戎服에 관한 研究'. 《學藝誌》. 第4輯.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1995.
- 金宣伶 (1984). '중국의 철릭에 관한 연구: 元 明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김정자 (1984). '帖裏考'. 服飾 第 8號.
- 金贊珠 (1980). '철릭에 관한 服飾史의 研究'. 서울대학교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 문명희 (1980). '帖裏에 관한 研究'.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 朴聖實 (1992). '朝鮮前期 出土服飾研究: 壬辰倭亂 以前時期를 中心으로'. 世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 論文.
- 徐希媛 (1995). '철릭의 조형성을 활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弘益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榮州市編 (1998). 《判決事 金欽祖先生 合葬墓 發掘 調査 報告書》.
- 오창명 (1997). '儀軌에 나타나는 借字表記 研究 (1)'. 《韓國服飾》15. 石宙善 博物館.
- 이은주 (1998). '철릭의 명칭에 관한 연구'. 《韓國衣類學會誌》12 (3).
- 이은주 (1989). '철릭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韓國衣類學會誌》13 (4).
- 이은주 (1998). '16세기 전기단령의 구성법 일례: 金欽祖 (1461~1528) 분묘 출토의 단령을 중심으로'. 《服飾文化研究》, 服飾文化學會誌 제6권 제2호.
- 이은주 (1998). "李仁孫(1477~1543) 묘의 출토복식에 대한 고찰". 《古文化》第52輯. 韓國大學博物館 協會.
- 이은주 (1999). "道袍 양식의 발전에 대한 갈등 기능론적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장인우 (1997). '조선시대 첩리의 명칭과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35(1).
- 溫楊民俗博物館 (1989). [安東金氏 墳墓發掘調査報告書 學術叢書].
- 장인우 (1995). 「우리나라 16, 17세기출토복식」. 학연문화사.
- 孫敬子 (1982). 金英淑共著. 「韓國服飾史資料選集」. 教文社.
- 石宙善 (1978). 「韓國服飾史」. 서울: 寶晉齋.
- 柳馨遠 (1958). 「礪溪隱錄」. 東國文化社.
- 柳喜卿 (1975). 「韓國服飾史 研究」. 서울: 梨花大學校 出版部.
- 劉頌玉 (1982). 「出土服飾 男服」. 韓國의 服飾. 서울: 韓國文化財保護協會.
- 李圭景 (1959). 「五洲衍文長箋散考」. 서울 東國文化社 影印本.
- 李肯翊 (1976). 「국역 燃藜室記述別集」. 서울: 고전국역총서.
- 「朝鮮王朝實錄」全 49卷 (1973). 國史編纂委員會 (編). 서울: 探究堂. 影印本.
- 「增補文獻備考」(1971). 서울: 東國文化社. 古典刊行會.
- 「順天金氏 王亂前 衣服 및 簡札」(忠北大所藏)重要 民俗資料調査報告書. (1979)
- 「25史 元史II」新文豐出版公社.
- 「25史 明史I」新文豐出版公社.
- 金東旭 (1980). 「李朝前期服飾研究」. 亞細亞 文化社.
- 金東旭 (1978). 高福男. "出土 朝鮮時代 遺衣의 服飾史的研究". 服飾 第二號. 韓國服飾學會.
- 金明淑 (1993). 《洪馮協 墓 出土 17世紀 服飾論考》. 忠北大學校 博物館.
- 沈從文 編著 「中國古代服飾研究」. 商務印書館.
- 王折 (1970). 「三才圖會」四. 臺北: 成文出版社 影印本.
- 光州民俗 博物館 編 (2000). 「霞川高靈 出土유물」. 青木富太郎 譯 (1983). 「東方見聞錄」. 東京: 社會思想社.
- 리득춘 (1987). 「조선어 어휘사」연변대학 출판사.

明宮愍, 「明宮史」卷三.

梁柱東 (1995). 麗謠受註. 乙酉文化史.

劉昌淳 (1973). 李朝國語史研究. 宣明文化社.

溫陽民俗博物館 編, 「安東金氏 墳墓發掘調查報告  
書」.

王宇清 (1967). 「中國服裝史綱」. 臺北.

日本陸軍省編, 「蒙古語大辭典(上)」1513(1982).

「元史」卷 七十八.

李基文 (1983). 「國語史概說」. 서울 : 塔出版社.

「譯語類解」上. 服飾편. 서울 : 아세아문화사, 영인  
본. 90(1974).

周錫保 (1984). 「中國古代服飾史」. 中國印刷出版社.

崔世珍 (1980). 《老乞大諺解》. 서울 아세아 문화사,  
영인본.

崔南善, 朝鮮의 常識.